



전주매일

“연말연시 방역 도민 체감토록”

송하진 지사, 시장·군수
특별방역대책 회의 주제
단체장 방역 상황 점검
도민에 백신 추가접종 요청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0일 '특별방역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과감한 현장 방역관리 노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12월 현재 전북도 일 평균 확진자가 전월 대비 107%가 증가한 80명대에 이르고 일일 최대 확진인 125명을 기록하는 등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송 지사는 “2년 동안 지속되는 코로나19와 사투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하는 방역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회의를 시작했다.

또, “도민들의 이해와 따뜻한 시선이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어느 때보다 위중한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가용인력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도내 특별행정기관에 인력지원요청을 하고 보건소 가용인력을 확대하겠다”라며 독려했다.

송하진 지사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최대 유행상황으로 전체 확진자의 43%가, 정상적인 역할 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도는 12월 현재 전월 대비 2배에 육

박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성인 기본접종(2차) 완료 후, 일정 기간 경과로 백신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했고, 소아·청소년 접종률도 낮아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중증도 예방을 위해서라도 어르신들 추가접종(3차) 및 소아·청소년 기본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 불신을 해소하고, 예방접종을 제고를 위해서는 언론·광고보다는 이·통장단 등 상호 신뢰가 있는 지인이 접종 참여를 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노인회장 경로당 지회장 등이 나서 어르신들 3차 접종을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부방침에 따라 강력한 거리두기는 아직 시행하지 않지만 일상회복 지속의 길잡이에 있는 만큼, 파격적인 특별방역대책을 주문했다.

우선 시·군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 밖에 ▲연말연시 지자체 주관 행사자제 및 공무원 사적모임 자제 권고, ▲단체장 참여 방역점검·홍보의 날 운영, ▲민·관 합동점검반 실천문화운동 가두 캠페인 전개 등 특별방역 대책 시행을 적극 당부했다.

송 지사는 “금지과 감시보다는 계도와 예방의 방역효과가 큰 만큼 도와 14개 시·군이 행정력을 총동원해 확진자 감소를 목표로 기초단위인 읍면동부터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단체장이 매일 코로나 상황을 직접 점검·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 새만금 산단 대규모 투자 결정

성일하이텍, 전북도 등과
13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산단 2공구에 2023년까지
폐배터리 양극재 원료 추출
이차전지 제조사 공급
생산공장 건립 130명 고용

새만금의 미래 가능성을 눈여겨본 성일하이텍(주)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1,3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세계적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으로 손꼽히는 성일하이텍(주)의 이번 투자로 새만금의 미래차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전북도는 군산 리마다호텔에서 성일하이텍(주)과 전기차 핵심 소재인 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추출 공장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일하이텍(주) 이강명 대표이사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성일하이텍(주)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산단 2공구 9만8,000㎡(29만 7,000평)에 오는 2023년까지 1,300억 원을 투자해 도시광산 원료(폐배터리)에서 양극재 원료를 추출해 이차전지 제조사에 공급하는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13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성일하이텍(주)은 미국, 중국, 헝가리, 인도, 말레이시아 등 7개에 해외 법인뿐만 아니라, 군산 국가산단 내 제2공구와 제3공구 투자를 결

성일하이텍(주) 새만금투자 협약식

시 | '21. 12. 10. (금) 참석 |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군산시, KFC, 한국농어촌공사, 성일하이텍(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군산 리마다 호텔에서 열린 성일하이텍(주) 새만금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일하이텍(주)은 이번 새만금산단에 제3공장을 추가 건설해 인접 공장에서 추출한 코발트·니켈·리튬 등 배터리 파우더를 원료로 후처리 공정을 통해 유가금속(이차전지 양극재 원료)을 추출 이차전지 제조사에 공급한다.

고객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현대글로벌, 삼성물산 등이 있다.

성일하이텍(주)은 전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으로, 이차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 폐리튬 이차전지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새만금 제3공구 투자를 결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일하이텍(주) 이강명 대표이사는 “전북도·새만금청·군산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새만금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새만금 공장을 발판으로, 이차전지 소재 분야 글로벌 선두기업으로 거듭나,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새만금의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비전을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성일하이텍(주)의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 산단이 이차전지 및 미래차 산업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전기차에 필수적인 이차

전지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성일하이텍(주)의 투자로 새만금 미래차 클러스터와 연계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 구축과 지역인재 고용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연관 산업체 활성화에 따른 간접 채용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 결정은 경제적 기대효과와 함께, 새만금이 전기차 등 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면서 “성일하이텍(주)이 새만금 공장을 기반으로,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새만금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년 연속 달성

지난해 31.5% 감축 환경부로부터 공로패 수여받아

전북도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감축 목표를 10년 연속 달성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783개 참여기관 중 2020년도 온실가스 감축실적 우수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우수시체를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대면·비대면 동시 진행)를 탄소중립 주간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10년째를 맞아 온실가스 권장감축률 10년 연속 달성기관 37개소를 선정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목표관리제에 참여한 가운데, 10년 연속 감축을 달성한 지자체는 9개에 불과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전북도와 인천광역

시가 기초자치단체에는 경기도 부천시, 수원시 등 7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환경부로부터 공로패 및 현관을 수여 받았다.

도는 지난 2011년 7.1%(정부 감축 목표 4%) 감축을 시작으로 매년 2~4% 상향된 목표를 달성하고, 2020년에는 31.5% (정부 목표 30%) 감축했다.

전북도 분청 및 사업소의 10년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만2,000톤CO2eq으로, 소나무 약 23만 그루의 식재 효과를 나타낸 셈이다.

도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청사 내 LED조명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유류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차량 활용, 업무시간 외 조명 소등,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을 전 직원이 에너지 절약에 노력했다. /유호상 기자

내년 9월 개최 전북도민체전 남원서

제59회 전북민체육대회가 남원시에서 열린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생활체육 위원회를 열고 내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59회 도민체전은 내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도민체전의 경우 매년 4~5월 개최되지만 대통령 선거(3월), 남원 춘향제(5월) 지방선거(6월) 등 상반기에 겹쳐진 일정이 많아 하반기에 개

최하기로 했다.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치러지며, 38개 종목(정식 37개·시범 1개)에서 도내 14개 시·군 선수들이 선의 경쟁을 펼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에 펼쳐질 전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와 동호인 리그 왕중왕전 대회 일정도 결정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6월 16일 무주군 일원에서, 동호인리그 왕중왕전은 11월 5~6일 장수군 일원에서 열린다. /정은성 기자

군민에게 힘이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의회